

83/84 세계사료곡물 수급전망

'83/84 사료곡물 재고 기록적 감소불구

증산기대와 소맥이용으로 가격은 내림세일 듯-

차장 민 병 렬

〈미국사료곡물협회〉

□ 머리말 □

어느 특정년도의 사료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전년도의 재고량(이월량), 당년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이다. 이중 이월량은 주어지는 것이나 생산량은 기상조건, 사료곡물의 예상 가격수준, 생산요소의 가격 즉 생산비의 변화와 인위적인 변수라 할수 있는 각국의 사료작물 생산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는 경제변동에 따른 축산물수요의 변동, 사료곡물 가격, 소맥을 비롯한 식량으로 쓰이는 타곡물의 가격 등에 의해 정해진다.

그런데 1983/84 곡물년도 생산량에 미치는 모든 요인이 불리하게 작용된 것 같다. 즉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즉 풍년기근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감산정책과 예상치 못했던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1983/84년도 미국의 사료 곡물생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47%(옥수수는 48%)나 감소됨에 따라 세계의 사료곡물 생산 또한 전례없는 13%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극심한 가격과동을 겪어야 했던 1974년의 전년대비 생산감소비율 미국 17%, 전세계 6%로 되었던 것 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에 사상최대의 사료곡물 재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 이월량과 당년생산을 합한 총 공

급량을 보더라도 74/75년 당시의 전년대비 공급 감소율 미국 21%, 전 세계 6%보다 금년도의 공급감소가 미국 39%, 전세계 9%로 더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옥수수가격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더 오를지 모른다는 사실이 한국과 같이 소요량의 대부분을 해외시장에서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을 불안하게 해 왔다.

다행히도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미국내의 비축분이 PIK 현물보상곡의 형태로 다량 시장에 출하될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맥이 사료로 이용되고 있어 큰폭의 가격등기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반구의 사료곡물 증산이 기대되고 또한 미국의 PIK 감산정책 중단으로 차년도의 사료곡물 생산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감소로 인한 심한 재고감소 현상이 앞으로의 사료곡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이 확실치 않은 장래에 대한 다소의 객관적 전망을 가능케 하려는 목적으로 최근의 자료를 이용, 수급상황과 가격전망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 세계 사료곡물 수급상황

가. 생산 및 소비

지난해 12월 중순에 발표한 미 농무성의 작황보고에 의하면 금년도(1983/84) 전세계 사료곡물 생산은 사상최대였던 전년도 보다 13% 즉 9,720만톤이 줄어든 6억 8,600만톤에 그칠것이

며, 금년말의 재고 또한 지난해의 절반도 안되는 6,420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및 재고감소는 미국의 감산정책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옥수수 생산감소 때문인 바 전 세계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은 전년도 보다 23%나 감소된 3억 4,180만톤으로 추정되며 재고는 63%나 준 3,160만톤에 불과 할 것이다. 이를 국별로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세계 사료곡물 수급상황

(단위 : 100만톤)

		옥	수	수	사 료 곡 물		전 체
		(81/82)	(82/83) ^{a)}	(83/84) ^{b)}	(81/82)	(82/83)	(83/84)
생 산							
미 국		208.3	213.3	104.7	249.0	255.5	136.0
캐 나 다		-	-	-	26.0	26.7	21.3
호 주		-	-	-	6.6	3.7	9.5
아르헨티나		9.6	8.8	9.5	18.4	17.9	18.6
남아프리카		8.4	3.9	9.5	8.8	4.3	10.1
태 국		4.3	3.4	4.0	4.7	3.8	4.3
서 유 럽		-	-	-	87.8	93.6	85.1
소 련		8.0	13.5	17.2	72.0	86.0	108.0
동 유 럽		29.7	36.2	30.3	60.0	71.7	64.0
중 공		59.7	60.3	61.2	80.0	86.0	87.0
기 타		111.2	100.3	105.4	148.9	134.0	142.2
합 계		438.7	439.7	341.8	767.0	783.2	686.0
공 급^{c)}							
미 국		234.6	271.4	184.4	283.7	326.6	234.3
기 타		254.7	247.8	254.0	566.8	571.5	589.4
합 계		489.3	519.2	438.4	850.5	898.1	823.7
소 비							
미 국		126.6	144.1	123.8	154.2	174.7	156.5
소 련		25.3	19.8	23.6	98.5	98.3	116.0
중 공		60.3	62.9	62.1	82.1	88.7	88.0
기 타		197.6	195.7	197.3	400.7	398.6	399.0
합계		409.8	422.5	406.8	735.5	760.4	759.5
재 고(이월)							
미 국		58.1	79.7	13.0	71.2	98.3	22.7
기 타		21.4	16.9	18.6	43.8	39.4	41.5
합계		79.5	96.6	31.6	115.0	137.7	64.2

a) 잠정치, b) 추정치, c) 당년생산과 정년도 이월량의 합계임.

한편 전년이월과 당년생산을 합한 사료곡물 총공급량의 감소는 기록적인 수준이었던 지난해(82/83) 보다는 약 8%, 81/82보다는 약 3%적이며, 80/81년과 비슷한 8억 2,370만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년도 소비량은 옥수수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사료곡물 소비가 1,800여만톤이나 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작년보다 1,770만톤 그리고 기타 몇개국의 소비가 약간 늘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7억 5,9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사료곡물 소비가 생산보다 7,350만톤 정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연말재고가 전년 대비 54%나 줄어든 6,420만톤에 불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전체 사용량의 8%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비교적 안정수준이라 할 수 있는 16.6%를 훨씬 하회할 뿐만 아니라 사료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1974/75년도의 재고 비율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 및 재고감소가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에 자세히 밝힐 미국의 PIK 보상곡이 시장출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소맥의 사료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70년대 중반과 같은 가격폭등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더 크게 오를 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물론 남반구의 작황등이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고는 하겠으나 현재로는 남반구의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금년도에는 자발적인 10%경작 면적 감소정책이외의 다른 정책 즉 PIK 프로그램등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미국의 사료작물 식부면적이 예년과 같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생산량 또한 증가하여 차년도말의 재고가 늘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없는 한 사료곡물 가격이너 이상 오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 사료곡물 교역

사료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전세계 사료곡물 교역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9,070만톤에 달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호주가 주로 보리와 키리의 수출증가로 전년도보다 32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전년대비 140여만톤 증가할 것이고 그외 아르헨티나, 태국 등의 경우도 약간의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는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과 폴란드, 터키, 이집트 등지에서 다소의 증가를 보일 것이며 여타지역의 경우는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약간씩 줄것으로 내다 보인다.

표2. 세계 사료곡물 교역상황

(단위: 100만톤)

수 출	사 료 곡 물 전 체					
	(81/82)	(82/83)	(83/84)	(81/82)	(82/83)	(83/84)
미 국	50.0	47.5	47.6	58.6	54.0	55.4
캐 나 다	-	-	-	7.2	7.1	6.4
호 주	-	-	-	3.4	0.8	4.0
아르헨티나	4.9	6.5	5.9	10.2	11.6	12.0
남아프리카	4.7	2.3	0.3	4.7	2.3	0.3
태 국	3.3	2.2	3.0	3.5	2.4	3.2
서 유 럽	-	-	-	5.9	6.3	5.3
기 타	4.6	6.1	3.5	4.9	6.4	4.2
합 계	67.4	64.6	6.3	98.4	91.0	90.7

수	입						
서	유 럽	-	-	-	21.1	15.8	16.8
소	련	13.4	6.5	7.0	20.4	11.0	10.0
일	본	13.3	14.0	13.8	17.9	18.1	19.0
동	유 럽	4.8	3.4	2.9	6.1	5.0	4.9
중	공	1.2	2.5	0.9	1.4	2.6	1.0
한	국	2.8	3.9	3.8	3.2	4.1	4.2
기	타				28.3	34.4	34.8
	합 계	67.4	64.6	60.3	98.4	91.0	90.7

이상에서 전세계 사료곡물의 수급과 교역에 관한 전망을 개관하였거니와 미국은 세계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료곡물을 생산하며 교역량의 약 3분의 2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의 사료곡물 수급상황이 세계적인 수급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사료곡물수급 상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미국의 사료곡물 수급현황

가. 감산정책과 기상이변

미국은 지난해까지 최근 몇년동안 생산과다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그동안 농가소득이 계속 감소하여 1930년대 이후 최대의 농업위기를 맞게 되었고 1950년대의 잉여농산물시대를 방불케하는 많은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다한 재고와 낮은 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국정부는 강력한 곡물감산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자발적인 경작제한(전년대비 10% 경작면적 감축), 경작면적전환보상제도(자발적인 경작제한에 추가로 10% 더 휴경), PIK 프로그램(앞의 두가지에 추가로 10~30% 경작면적 휴경)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PIK란 정부의 각종 감산정책에 참여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상응하는 휴경보상을 현금이 아닌 동종의 현물(재고: 비축곡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에 실시하여 이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주된 목적은 생산량과 재고를 감축시켜 가격을 상향조작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지향적 농산물 생산체제로 전환하려는 데 있었다. 1983년 계획에 포함된 농산물은 옥수수, 수수, 밀, 쌀, 면화 등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감산정책에 따라 1983년 3월 23일 현재로 집계된 1983/84년도 미국의 옥수수와 수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9%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른 옥수수와 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각각 33%와 17%씩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옥수수는 1982/83년도의 2억 1,300만톤보다 7,000여만톤이 적은 1억 4,300만톤에 달할 것이며 수수는 전년도의 2,130만톤보다 360만톤이 적은 1,77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른 연도말의 재고는 옥수수가 전년도 대비 52% 줄고 수수는 오히려 재고가 늘는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리고 옥수수가격은 당시의 톤당 농가수취가격 100불내외에서 106~122불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는 물론 기후가 정상적일 것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7월이래의 전례가 없었던 한발과 폭서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옥수수와 수수의 작황이 저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즉 기후조건을 평년과 같을 것이라 가정하고 감산면적만을 고려했던 당시에 1억 4,300만톤으로 예상되던 옥수수 생산량은 그보다 27%나

특 집 '84년도 축산전망

표3. 미국 예측시기별 83/84사료곡물 수급전망

(단위: 100만톤)

	옥 수		수 수		사료곡물 전체	
	(83. 3. 23) ^{a)}	(83. 12. 14)	(83. 3. 23)	(83. 12. 14)	(83. 3. 23)	(83. 12. 14)
당년 생산	143.1	79.7	17.7	12.2	178.7	136.0
국내 소비	129.4	104.7	11.1	13.0	156.9	156.5
수 출	53.3	123.7	6.3	5.7	61.1	55.4
재 고	47.6	13.0	14.2	3.8	71.1	22.7

a) 사료작물 감산정책의 일환인 PIK 프로그램에 의한 감산등록면적이 확정되었을 때 당시의 추정치임 *

낮고 전년보다는 51%나 적은 1억 470 만톤에 불과하며 수수는 당시의 예상 보다는 31%, 지난해 보다는 43%나 줄어든 1,220만톤 생산에 그침에 따라 재고가 각각 전년도의 8분의 1, 3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사료곡물 수급

생산면적 감축에 이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옥수수 및 수수의 생산감소로 미국의 1983/84 사료곡물 생산은 사상 최대였던 1982/83년도 보다 47%, 2년전보다는 45% 감소한 1억 3,600 만톤에 머물고 말았다. 이중 옥수수의 생산은 전년도의 반 이하로 줄었으며 수수 역시 전년도의 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1983/84년도 미국 국내의 사료곡물 소비량은 가격상승으로 말미암아 전년도보다 1,800 만톤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사료곡물 소비는 과잉공급으로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소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와 같은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심한 생산감소로 인해 사료곡물 재고는 전년도 수준의 23%, 그리고 옥수수는 16%, 수수는 38%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고는 안정재고수준을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즉 사료곡물 재고는 총수요의 10%, 옥수수는 7%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4. 미국 사료곡물 수급전망(12월14일 현재)

(단위: 100만톤, \$/톤)

	옥 수			수 수			사료곡물 전체		
	(81/82)	(82/83) ^{a)}	(83/84) ^{a)}	(81/82)	(82/83)	(83/84)	(81/82)	(82/83)	(83/84)
공 급	<u>234.6</u>	<u>271.4</u>	<u>184.4</u>	<u>25.1</u>	<u>29.0</u>	<u>23.4</u>	<u>283.7</u>	<u>326.7</u>	<u>234.3</u>
(전년 이월)	(26.3)	(58.1)	(79.7)	(2.8)	(7.5)	(10.2)	(34.7)	(71.2)	(98.3)
(당년 생산)	(208.3)	(213.3)	(104.7)	(21.3)	(22.4)	(11.2)	(249.0)	(255.5)	(136.0)
수 요	<u>176.6</u>	<u>191.6</u>	<u>171.4</u>	<u>17.5</u>	<u>18.7</u>	<u>18.7</u>	<u>212.8</u>	<u>228.7</u>	<u>211.9</u>
(국내 소비)	(126.6)	(144.1)	(123.8)	(11.2)	(13.3)	(13.0)	(154.2)	(174.7)	(156.5)
(수 출)	(50.0)	(47.5)	(47.6)	(6.3)	(5.4)	(5.7)	(58.6)	(54.0)	(55.4)
연말재고	<u>58.1</u>	<u>79.7</u>	<u>13.0</u>	<u>7.5</u>	<u>10.2</u>	<u>3.8</u>	<u>71.2</u>	<u>98.3</u>	<u>22.7</u>
(농가보유)	(33.3)	(39.4)	(0.6)	-	-	-	(39.7)	(47.4)	(4.5)
(CCC재고)	(7.7)	(29.2)	(3.2)	-	-	-	(8.9)	(33.5)	(5.3)
(시장출하량)	(17.1)	(11.2)	(9.2)	-	-	-	(22.6)	(17.4)	(12.9)
농장가격	98	104	128~140	-	-	-	-	-	-

a) 잠정치 b) 추정치

다. 금후의 생산정책과 가격전망

미농무성은 지난해 9월 29일을 기해 1984년부터는 PIK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금년부터는 자발적인 경작면적제한정책만을 계속하고 기타 경작 전환보상제도나 현물 보상

제도인 PIK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4년도의 사료작물 식부면적은 1982년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될 것이며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져 차년도(1984/85)의 재고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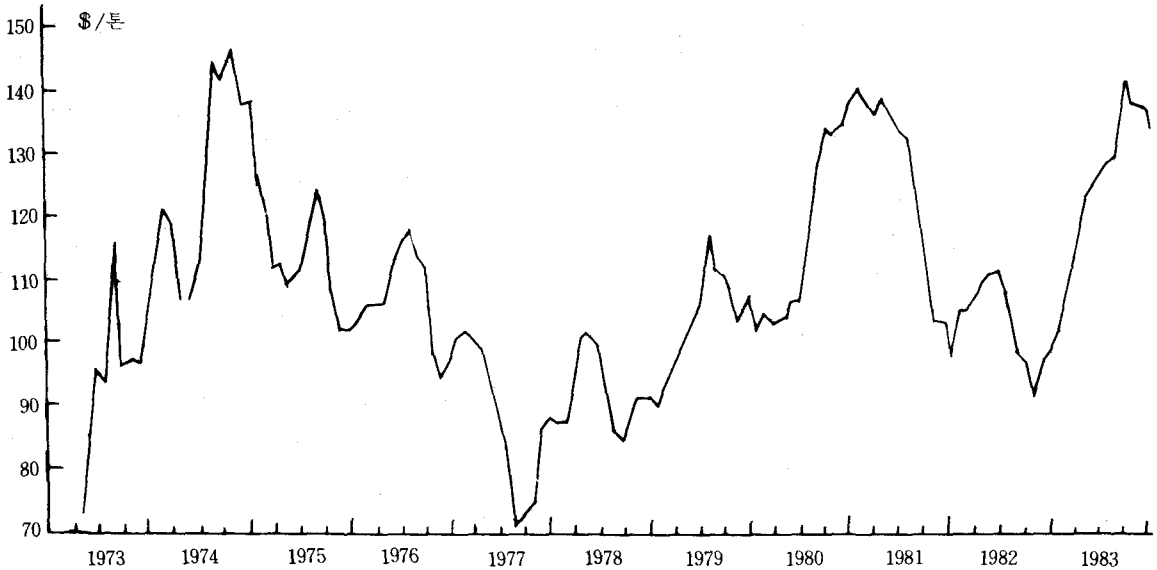


그림 1. 옥수수 가격 변동 추세(No. 2. Yellow, Chicago)

실제로 미농무성 및 미국내 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농업경제학자들은 미국정부가 오래전부터 도입해온 용자에 의한 비축제도는 공급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가격의 진동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감소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PIK 프로그램이 비축되어 있는 곡물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간의 비축분을 가격이 더 오를 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시장에 내 놓으므로써 가격의 등귀를 억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PIK 프로그램에 따른 곡물지급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었는 바 일단 지급된 곡물은 다시 정부의 비축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계년도에 PIK보상곡으로 풀려나는 옥수수의 양이 4,400만톤에 달하며 이의 전량이 시장에 출하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은 소맥가격의 하락으로 미국내에서만도 1,100만톤이상의 소맥이 사료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곡물 수급의 어려움을 크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미국 또는 전세계의 사료곡물가격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리고 PIK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생산증대가 기대되어 지난해와 같은 기상이변만 없다면 파종기 이후부터는 가격이 오히려 내림세를 보일 전망도 없지 않다.